



를 거절하는 이유 역시 똑같은 것이다.

이번 주, 노동당 전국 위원회는 영국의 모든 주요 유대인 조직이 수용하고 있는 반 - 유대주의 강령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당은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연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 유대주의" 강령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반 인종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 - 유대주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이러한 처사는 노동당 지도자들이 과거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연맹의 의견에 찬성했던 자신의 발언을 걱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영국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의 행위로 인식된다.

당신은, 반 - 인종주의 노선을 따르는 정치인이라면, 반 -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의 지도자는 자기만족에 빠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그 자기 만족을 깨뜨린다면, 그 노동당 지도자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자, 자신을 세속적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는 마가렛 호지는 코빈의 배신에 대해 그를 "반 - 유대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 할 만큼 격노했다. 그리고 노동당의 지도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 - 유대주의에 대한 코빈의 반응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의 개인적 편견이 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가 반 - 유대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정권이 사회를 궁지로 몰아넣도록 허락한 것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좌파 정권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 내용은 <https://capx.co/the-lefts-dangerous-monopoly-on-virtu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